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값 상승... 국내 제조업에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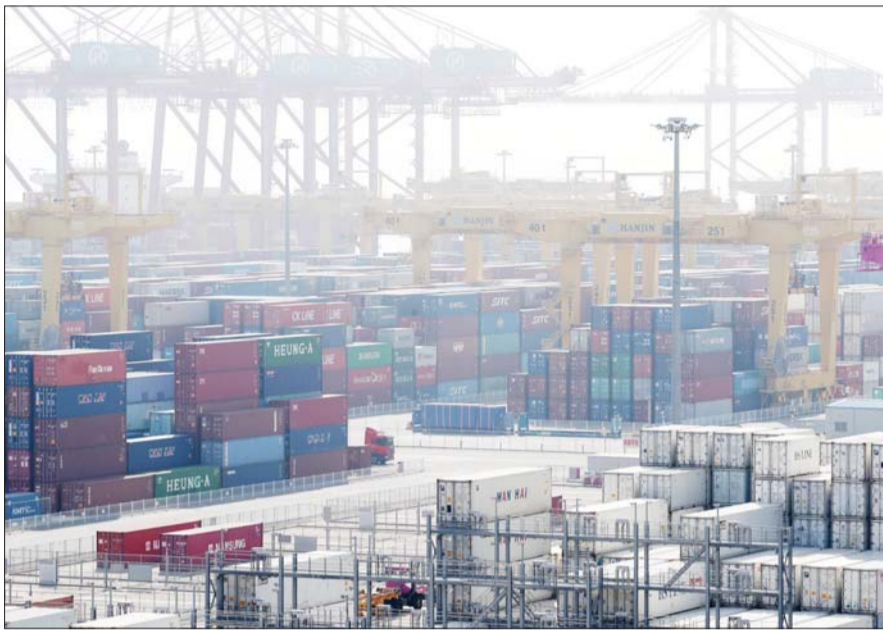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 '11월 경제동향'
대외여건 악화에 제조업 위축
불확실성 확대 등 회복세 제약
속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도 차질을 빚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다만, 백신 접종 확대, 방역 조치 완화로 대면 서비스업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날 '11월 경제동향'에서 공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시스

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는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출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제조업의 회복세가 제약되고 불확실성이 확

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지난 8월 96에서 9월 94, 10월 92로 하락세를 보이다 11월에는 87로 내려갔다.

반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면 서비스업은 조금씩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KDI는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월 서비스업생산은 3.3%로 전월(4.2%) 보다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KDI는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업(11.2%)과 운수·창고업(7.5%)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율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103.8)보다 3.0포인트 오른 106.8로 집계됐다.

KDI는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 방역조치가 대폭 조정됐고, 향후 제조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은 지난 달 24%로 전월(16.7%)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KDI는 "물량 기준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는 등 지속된 고물가에 대해 KDI는 "석유류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반영돼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아세안 5개국 생산차질... 韓 타격 불가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美·中·日 등 보다 타격 ↑
글로벌 물가상승 우려도

아세안 지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물가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5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아세안 5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강력한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5개국에서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아세안 5개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로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수출입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부진도 이어졌다. 올해 6월 이후 이동·영업제한과 같은 고강도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하면서다.

아세안 5개국은 2020년 현재 글로벌

중간재 수출시장에서 6.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중간재 수입시장에서도 6.9%를 차지하며 높은 위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아세안 5개국 전체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도(제조업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베트남과 태국의 GVC 참여도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5개국 제조업 생산이 7~9월 중 코로나19 확산세로 7% 정도 차질을 빚었다고 가정하면 전후방효과를 통해 우리나라 연간 GDP를 0.02%에서 최대 0.06%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부가가치 감소율 기준)이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영향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중국은 전자·광학기기가, 일본, 독일, 미국은 운송장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수요차질로 인한 품목별 영향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미국은 전자·광학기기가, 일본·중국은 1차 금속제품이, 독일은 화학제품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 3분기 중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의 생산차질이 우

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아 이번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아세안 5개국에서의 생산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세안 지역의 생산차질이 여타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맞물려 글로벌 물가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져 지난 2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높은 물가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수요측물가상승압력 ▲공급병목현상 ▲임금상승압력 ▲주거비 ▲유동성 등이 꼽힌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이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공통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동원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밥상 물가' 고공행진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 등 각종 농산물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퇴직금 더 받고, 새 인력 뽑고... '원원'

▶▶ 1면 '뱅크 40대 인생 2막'서 계속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5억 더 받기도

신한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자 범위를 1972년생 이전에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직원으로만 49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줬다.

은행에 따라,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희망퇴직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은행 입장에서선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선 이른 나이에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올해 시중은행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럴 바에는 40대에 나가 빨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으로서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그 비용으로 IT(정보통신)부문에 집중해 새 인력을 뽑으려는 경우가 많아져 내년에는 희망퇴직자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내년까지 치료제 5000만개 생산 계획”

▶▶ 1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서 계속

90개국과 치료제 공급계약 논의중

다만,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화이자는 치료제와 위약환자 그룹 전체 20%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다.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설사 등이 있다.

화이자는 현재 중증화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과 미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1분기 나올 계획이다.

화이자 측은 2022년 상반기 2100만개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18만개, 내년 말까지 최소 5000만개 이상의 치료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알버트 벨라 화이자 CEO는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좋아 화이자사가 내년

생산목표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0개국과 치료제 공급 계약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머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몰누피라비르 5일분을 가격을 700달러에 책정하고 있다.

벨라 CEO는 "가격은 머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